

22

제10회 중국 성균 한글 백일장

학교	한글	곡부사범대학교	성명	한글	조설순	생년월일	1994년 11월 26일
	영문	Guifu Normal University		영문	Xuechun Zhao	학년	삼학년

과속

과속이라는 단어를 내 눈 앞에 생생히 나타낸 그때 그 순간, 나는 우물에 가 숨 농 쫓는다는 속담이 머리 속에 떠오른다. 흔히 이 말은 급하게 행동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물론, 과속이라는 단어를 딱 보면 너나나나머리속에먼저스치는것은과속운전뿐인것이다.그러나나는, ‘과속’하고 ‘운전’을한세트처럼쓰고싶지않고내가했던어리석은실수를반성하려고한다.

어린시절에나는대자연에모든생물에재미가있고흥미진진했다.여름이되면친구들과함께나무가지에앉아있는곤충을잡기도하고배나무에아직여물지않은뽕은배를따기도했다.동물중에서나는하늘에나는새들을제일좋아했다.새한마리를گیر는것은그때나의유일한소원이었다.

소꿉친구집에아주큰과수원이있었다.거기에서여러가지예쁜새들을드물로잡을수있었다.친구는내소원을알게된후에나에게이렇게

제10회 중국 성균 한글 백일장

학교	한글	곡부사범대학교	성명	한글	조성순	생년월일	1994년 11월 26일
	영문	Gufu Normal University		영문	Xuechun Zhao		
						학년	삼학년

말했다.

‘그래, 알았다. 나중에 꼭 새 한 마리를 가지고 줄게.’

며칠 후 그녀가 역시 이름도 없는 새 한 마리를 가지고 나를 찾아왔다.

너무 흥분해서 고맙다는 말조차 없이 새에게 먹이를 찾으러 뛰어갔다.

그러나 이를 보니도 않고 먹지도 않

았다. 나는 새가 배고파 할까봐 걱정이 되고 애를 많이 뒀다. 결국은 참지 못

해 억지로 새의 주둥이를 잡고 밀려 넣으려고 했다. 새는 화를 낸 듯이 기

회를 타서 무정하게 내 손을 찼다.

‘이 바보야! 너 좀 어 죽고 싶어 하

냐?’

너무 아파서 내 마음을 받아 줄 줄 모른 새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마침내

그 새는 일주일 동안 먹이를 먹지 않는

보면 그때 나는 급한 나머지 새에게 쪼인 아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사랑스러운 새를 잃은 아픔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그때 내가 그렇게 급하게 말

고 며칠 더 기다리고 새를 마음대로

